

KIND 방글라 협력센터 주간 건설·인프라 동향 보고(10.10)

1. 방글라데시 경제 동향

○ 방글라데시 환율 및 기준금리 추이

Source: <https://www.bb.org.bd/en/index.php/econdata/index>

구 분	내 용	비 고
은행간 환율	110.50 Tk/USD (전주대비 0.00△)	'23.10.10 기준
기준금리	4% 유지	'23.09월 기준
월평균 시중금리	6.41% (전월대비 0.13△)	'23.09월 기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아직 2023년 10월 금리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 방글라데시 국채 금리 추이(현지화 10년물 8.505%)

▼ 8.505 -0.00 -0.00%

출처: <http://www.worldgovernmentbonds.com/bond-historical-data/bangladesh/10-years/>

Yield changed +0.0 bp during last week, +0.0 bp during last month, +23.5 bp during last year.

Current Yield is close to **1 year maximum value**

Period	Change	Min	Range	Max
1 Week	0.0 bp	8.505 % Oct 4, 2023	No change	8.505 % Oct 11, 2023
1 Month	0.0 bp	8.505 % Sep 11, 2023	No change	8.505 % Oct 11, 2023
6 Months	0.0 bp	8.505 % Apr 11, 2023	No change	8.505 % Oct 11, 2023
1 Year	+23.5 bp	8.210 % Oct 16, 2022		8.510 % Jan 14, 2023

Current Yield: 8.505%

□ IMF, 방글라데시 경제성장률 전망 6%로 하향 조정

- 국제 통화 기금(IMF)은 방글라데시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경상 재정의 6%로 하향 조정. 올해 4월 IMF는 FY24의 경제 성장률을 6.5%로 전망한 바 있음.
- IMF의 이번 성장률 전망치 수정은 세계은행이 고에너지 비용, 수입 억제, 은행의 달러 부족, 통화긴축 부진 등을 이유로 방글라데시의

현 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5.6%로 낮춘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 세계은행은 지난 4월 24일 회계연도 GDP 성장률을 6.2%로 전망.

□ 수입대금 증가와 함께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감소

- 외환보유고는 급격하게 감소, 증가하는 수입물품 대금 지불이 이러한 감소 추세의 주요 원인 중 하나.
- 방글라데시 은행은 2023-24 회계연도 1분기(7~9월)에 37억5000만 달러의 준비금 보유, 주로 정부의 수입 부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
- 지난 9월 말 방글라데시의 외환보유액은 210억 5천만 달러. 방글라데시 은행의 자체 자료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0-21년 말 외환보유액은 463억 9천만 달러. 27개월(2021년 7월~2023년 9월)의 기간 동안 그 금액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는 것을 의미.


□ ADB, 방글라데시에 향후 3년간 90억달러 자금 지원 약속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방글라데시에 2026년까지 90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 이 원조는 내년부터 향후 3년간 매년 30억 달러의 비율로 지출될 예정.
- 에디몬 킨팅 ADB 대표는 MA 만난 기획장관과 면담한 뒤 이 같은 내용을 공유. 에디몬 킨팅 대표는 이날 기획장관 면담에서 방글라데시 백신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ADB의 신속한 대출 승인 필요성을 강조. 그는 12월 31일까지 프로젝트 승인이 나지 않으면 저금리 대출 가능성이 불투명해 질 것이라고 강조.
- ADB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3억 3천 8백만 달러를 융자, 그 중 절반은 低利의 이자, 나머지 절반은 거의 시장 금리. ADB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신속한 승인을 요청.

2. 건설·인프라 시장 동향

□ Padma 대교, 철교 개통

- 파드마 다목적 다리를 통한 열차 운행이 시작. 유엔이 지정한 아시아 횡단철도를 국경을 넘어 연결하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등장.

TOTAL PROJECT COST Tk 392.46 billion	CHINESE LOAN AMOUNT US\$ 2.66 billion (equivalent to Tk 210.36 billion)
PROJECT TENURE January 01, 2016 to June 30, 2024	
LOAN CONTRACT SIGNING April 27, 2018	
PROJECT COMMENCE July 03, 2018	
GROUND BREAKING CEREMONY October 14, 2018	
INAUGURATION 82 km from Dhaka to Bhanga, Faridpur	
TOTAL LENGTH 169 kilometre	SPECIAL FEATURES
	● 23.37 km viaduct track
	● 33.93 km ballastless track
	● 100 broadgauge coaches
	● 14 new stations

- 이 프로젝트 총 비용은 39,246.80크로어로 추정, 중국 수출입은행이 21,036.70크로어의 대출을 제공. 2016년에 시작된 이 메가 프로젝트의 진행률은 9월까지 83%를 기록.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는 내년 6월 까지 완공될 예정인 2단계 공사 아래 분기점으로 개발되고 있는 방가역에서 변경지역 자쇼어(Jashore from Bhanga station)까지 169km의 선로를 건설할 예정.
- 11월에 두 개의 철도 노선 추가 개통 예정. 쿨나-몽글라(Khulna-Mongla) 철도는 11월 9일에 개통, 항구도시 차토그램과 해변도시를 연결하는 도하리 콕스바잘(Dohazari-Cox's Bazar)철도는 11월 12일에 정식 개통될 예정. 이 노선의 시험운행은 10월 15일에 실시될 예정.

□ EU, 재생 에너지에 대해 3억 9,500만 유로 제공

- 방글라데시의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은 유럽 연합의 대출 기관인 유럽 투자 은행 (EIB)으로부터 3억 9천 5백만 유로를 융자를 받을 예정. 방글라데시가 화석 연료 의존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

- 방글라데시는 신재생에너지원 채택과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 올해 8월 사우디 ACWA 전력회사가 이끄는 합작회사와 현지 2개 회사는 4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바게르 하트의 람팔 우파질라(Rampal upazila of Bagerhat)에 방글라데시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하기로 합의.
- 같은 달 피터 하스 방글라데시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 투자회사 블랙스톤이 방글라데시 태양광 분야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
- 3억 9,500만 유로의 차관 규모는 EIB와 방글라데시 간의 현재까지 체결된 재원조달 협약 중 가장 큰 규모. EIB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에 대한 이들의 총 재원조달 지원 규모는 8억 유로에 달함.

□ 한국대사, CSR의 중요한 역할 및 성과 달성

- 박영식 주방글라데시 대사는 '한국 투자자 CSR 활동과 투자 전망'이라는 K-CSR 세미나에서 "방글라데시와 한국은 지난 5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의 더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방글라데시에 있는 한국인 투자자들은 다양한 CSR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박 대사는 밝힘. 선진 기술을 공유하는 것부터 교육, 환경 지속 가능성, 의료 등을 증진시키는 것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업들은 방글라데시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박 대사는 강조.

□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룩퍼 원자력 발전소 개발

- 루푸르 원자력 발전소(RNPP),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 합의를 통해 2023년 10월 5일 원자력 연료를 공급받아 전력을 생산기로 함.
- 러시아 로사톰(ROSATOM)은 2,400메가와트(MW)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 중.

1,200MW 규모의 1호기는 내년에, 나머지 1호기는 2025년에 각각 가동될 예정. 사업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RNPP 1호기를 2024년 9월, 2호기는 2025년 중반에 위탁 운영할 예정.

- 7천 명의 전문가를 포함해 3만 명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 이 프로젝트는 60-80년 동안 운영될 것으로 예상.
- 모스크바는 12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건설하기 위해 90%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 방글라데시는 10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8년에 걸쳐 대출금 상환을 시작할 것.

□ 일본, 다카공항 제3터미널과 동일한 형태의 사업 지속추진 희망

- 일본은 다카 공항 제3터미널과 같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고무라 마사히로 일본 국회 외무차관은 토요일 "동남아와 인도대륙의 연결고리에 위치한 방글라데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파트너"라고 언급. 그는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주빈으로 진행된 하즈라트 샤할랄 국제공항(HSIA) 제3터미널 개장식에 참석해 연설.
- 최근 일본은 벵골만 산업성장벨트 구상에 따라 다카 메트로, 마타바리 심해항, 다카 공항 제3터미널 등 지역 연계성 제고를 위한 주요 인프라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올해 4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는 방일 당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 새로운 양국 관계는 방위 장비 협력, EPA 가능성을 위한 공동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중.

3. 재난상황 및 정치상황

□ 미국, 방글라데시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여론조사 실시를 강조

- 미국의 국제공화당연구소(IRI)와 국립민주연구소(NDI)의 공동 사절단은

방글라데시의 선거 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10월 8일 다카에 도착.

- 미국의 선거전 평가단은 선거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왔으며, 조사단은 선거과정에 대해 질의. 다카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회담에서 방글라데시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참여적이며 평화로운 선거를 개최할 것을 강조.
- BNP의 대표단은 월요일 미국을 방문하는 선거 전 평가단에 투표 조작을 제도적 형태로 부여한 현 정권에서는 신뢰할 만한 선거가 불가능하다고 밝힌바 있음.

□ 마이멘싱에서 버스 추돌로 5명이 사망

- 다카-마이멘싱 고속도로에서 버스추돌로, 의류 노동자 4명을 포함 최소 5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